

똑! 소리 나는 신혼



느새 봄바람이 곳곳에 불고 있다. 리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들의 가장 큰 고민이다. '와 '친환경'이다. 4차 산업혁명 관망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강에는 가구, 건자재도 포름알데히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메자들을 돋기 위해 새 봄을 맞아 혼

- ④ 한화L&C의 '칸스톤'과 빌트인 가구 큐치네.
⑤ LG하우시스의 실크벽지 '베스띠'
⑥ 에이스침대의 BRA-1446.

정수·냉수·온수·얼음까지 '멀티 플레이어'

청호나이스

29cm 초소형 사이즈로 신혼집 안성맞춤

청호나이스의 카운터톱 커피얼음정수기 '휘카페-IV 옛지'는 정수, 냉수, 온수, 얼음 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 커피까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정수기다. 신혼집이 상대적으로 작은 신혼부부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이런 기능을 갖추고도 사이즈는 A4 용지 1장보다 작은 29cm의 초소형이어서 부엌 등에 설치해도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여기에 고급 LED 창을 적용해 인테리어 가전으로도 손색이 없다.

각 기능별 용량은 정수 2.4L, 냉수 1.6L, 온수 0.57L, 얼음 0.52kg으로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청호나이스만의 특허받은 제빙기술은 전기요금 부담 없이 얼음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수기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온수다. 일반적으로 온수기능이 있는 정수기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정수기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온수기능이 있는 정수기를 설치해 두고 도전기요금 부담으로 온수기능을 꺼놓고 사용하는 가정도 적지 않다. '휘카페-IV 옛지'는 이런 단점을 극복했다. 상황에 맞게 온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온수시스템도 적용했다.

/김승호 기자

스테인리스 직수 물길·한번 더 살균… 위생성 '극대화'

SK매직

냉수 외 '3단계' 온수 온도조절

SK매직의 직수형 정수기 '올인원'(All-in-One)은 제품명 그대로 냉수, 온수, 정수에 조리수까지 직수는 기본이고 온수는 미온, 유아수 50도, 차 70도, 온수 80도로 3단계 조정이 가능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SK매직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냉온직수정수기를 선보이며 시장을 이끌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올인원'은 1세대 직수형 정수기인 '슈퍼정수기'와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탑재한 2세대 '슈퍼S정수기'에 이어 세번째로 선보인 '3세대'로 꼽힌다.

'올인원'의 혁신성은 물이 지나가는 유로에서 시작한다. 저수조를 없앤 직수형 정수기에서 보다 더 깨끗

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착안해 물길 전부를 스테인리스로 바꿔 위생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했다.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는 신혼부부들이 눈여겨 볼 만하다.

게다가 직수로 깨끗해진 물을 99.9%의 살균력을 갖고 있는 UV LED로 물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 살균해 주고, 코크(취수구)도 2시간마다 자동으로 살균해 위생성을 극대화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새집 증후군·아토피도 걱정 없는 '소나무' 마루바닥

동화기업

포름알데히드 없는 친환경제품

동화기업이 선보이고 있는 마루바닥재 '나투스 진 헤링본'은 포름알데히드가 없는 친환경 제품이다.

친환경 신소재인 나프보드 위에 다양한 무늬지를 입히고 헤링본 시공 처리를 한 SEO등급(포름알데히드 방출량 0.3mg/L 이하)의 최고급 바닥

재라 포름알데히드 방출이 거의 없어 아토피성 피부병이나 새 집 증후군 발생 걱정이 없다. 또한 100% 국내산 소나무만을 원재료로 사용해 품질도 신뢰할 수 있다.

내수성도 강해 물을 자주 사용하는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 습기 노출에 대한 복원력도 우수해 습기에 노출되더라도 치수 변화가 거의 없다. 이중 시공 방식(클릭 시공과 접착식 시공 결합)을 적용해 목

질 바닥재의 고질적인 수축팽창 문제도 해결했다.

제품 생산 단계에서 라돈 제어 기술을 적용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인 라돈 가스 저감에도 효과가 크다. 시공단계에서도 라돈 제어 물질을 침가한 나투스 진 전용 시공 접착제 '그린풀 황토'를 신규 개발,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면에서 발생하는 라돈 가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흡착 분해한다.

/김승호 기자

집 안에서 즐기는 휴가를 꿈꾸는 '홈케이션' 컬렉션

LG하우시스

실크 '베스띠'·합지 '휘앙세' 출시

LG하우시스는 올해 '집'과 '휴식'을 주제로 실크벽지 '베스띠'와 합지벽지 '휘앙세'의 신규 컬렉션을 내놨다.

집(Home) 안에서의 휴가(Vacation)를 의미하는 '홈케이션(HOMECA TION)'이 메인 테마로 편안하게 공간을 즐기고 새로운 하루를 꿈꿀

수 있도록 다채로운 디자인이 반영됐다. 이 중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레트로 모던', 자연스러운 일상을 담은 '가든 네이처' 라인은 감각적인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베스띠'는 트렌디한 컬러와 우수한 품질로 LG하우시스의 벽지 컬렉션 중 가장 인기가 높다. '유럽섬유제 품 품질인증'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해 만 3세 미만의 유아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대한아토피협회 추천과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및 저탄

소제품 인증도 획득했다.

'휘앙세'는 시공이 쉽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소비자에게 알맞은 합지벽지다. 풍성한 솔리드 컬러를 자랑하며 패턴의 입체감이 살아 있어 패브릭의 질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지아 자연애' 바닥재는 LG하우시스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제품으로 피부에 닿는 표면층에 옥수수에서 유래한 식물성수지(PLA)를 사용해 친환경성을 높였다.

/김승호 기자

주방의 '품격'은 업그레이드 '가격'은 다운그레이드

한화L&C

순도 99% 석영 주원료로 사용

한화L&C는 봄을 담은 신혼집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엔지니어드 스톤 '칸스톤'을 강력 추천했다.

주방 상판으로 제작인 '칸스톤'은 천연석보다 더 천연석 같은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다양하고 깊은 울림을 구현해 세련되고 화려한 주방을 완성한다. 특히 박테리아나 세균에 안전

하면서 동시에 주방의 품격을 업그레이드시켜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천연 대리석보다 강도와 내구성이 더욱 뛰어난 것은 '칸스톤'의 장점이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경도가 뛰어난 순도 99%의 석영(Quartz)을 주원료로 사용해 표면 긁힘과 파손의 위험이 적을 뿐 아니라 천연석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깨짐이나 색상 불균형 현상을 최소화했다. 수분 흡수율이 낮고, 천연석 대비 표면

공극이 적어 김치국물, 커피, 와인 등 음식물 얼룩도 생기지 않는다.

'칸스톤'은 식탁 상판으로도 쓸 수 있다. Q'LINC(큐링크), 칸스톤 스퀘어 식탁 시리즈, 짧은 갑각의 스타일리시한 러터 식탁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큐링크 식탁 시리즈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애쉬나무 원목의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운 강화천연석의 조화로움을 자랑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식탁 대비 고급스러움은 더하고 가격은 낮췄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만의 안락함… 누워도 앓아도 편안한 침대

에이스침대

추천모델 투 매트릭스 시스템 적용

에이스침대가 추천한 루나토(LUNATO) II와 BRA-1446은 헤드보드 부분에 각도를 줘 침대에 기대 휴식을 취하기 편리한 제품이다.

LUNATO II는 에이스침대의 인기 모델 'LUNATO'의 고급스러운 가죽 질감에 오크진 컬러의 우드 프레임 포인트를 더한 고급형 침대다. 우드 프레임이 더해진 카멜브라운 헤

드보드가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볼륨감과 두께감 있는 머리판에 각도를 줘 헤드보드에 기댔을 때 편안한 상태에서 독서나 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다.

헤드보드 같은 프레임은 기존 'LU NATO' 모델보다 두께감이 크고 높이가 높아 매트리스를 감싸는 듯한 디자인으로 아늑한 침실 인테리어를 완성한다.

BRA-1446은 저상형으로 침실을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연출한다.

헤드보드와 프레임 전체를 프리미

엄 가죽 느낌의 질감으로 마무리해 디자인적 통일감은 물론 고급스러움을 준다. 두께감 있는 헤드에 기울임이 있어 휴식을 취할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깔끔한 그레이 화이트 컬러와 색다른 텍스처를 가진 사이얼런트 블루 컬러가 침실의 세련미를 한층 높여준다.

LUNATO II, BRA-1446 모두 에이스침대의 투 매트릭스 시스템을 적용해 에이스침대만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

/김승호 기자